

한대 교사가(郊祀歌) 주석과 번역

徐 盛*

「교사가」은 모두 19장으로 한 무제(漢武帝) 때 지어졌다. 현재 『한서』 「예악지」(禮樂志)에 실려 전한다. 곽무천(郭茂倩)은 『악부시집』(樂府詩集)에서 “교묘가사”(郊廟歌辭)로 분류하였다. 고대 중국에서 제왕이 지내는 제사에 사용된 음악은 두 종류로 천지신명에게 제사지낼 때 사용하는 교악(郊樂)과 조상에 제사지낼 때 사용하는 묘악(廟樂)이다. 이들을 합하여 교사악 혹은 교묘악이라 하며, 그 가사가 곧 교묘가사이다. 「예악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무제 때 교사(郊祀)의 예를 제정하여 감천궁에서 하늘의 존귀한 신 태일(太一)에게 제사하였는데, 건괘(乾卦)가 상징하는 장안의 서북지방에서였다. 분음(汾陰)에서 연못 가운데 네모꼴 언덕을 만들어 땅의 신 후토(后土)에게 제사하였다. 곧 이어 악부(樂府)를 설립하고 민간에서 수집한 노래를 밤에 익혔는데, 조(趙), 대(代), 진(秦), 초(楚) 지방의 노래들이었다. 이연년(李延年)을 협률도위(協律都尉)로 임명하고, 사마상여(司馬相如) 등 수십 명이 지은 시부(詩賦)를 뽑아 율여(律呂)를 맞추니 팔음(八音)의 가락에 맞는지라 19장의 노래를 만들었다.”(至武帝定郊祀之禮，祠太一於甘泉，就乾位也；祭后土於汾陰，澤中方丘也。乃立樂府，采詩夜誦，有趙、代、秦、楚之謳，以李延年为協律都尉，多學司馬相如等數十人造爲詩賦，略論律呂，以合八音之調，作十九章之歌。) 현존하는 19장은 사마상여 등 수십 명이 지었다고 했지만, 각 장을 누가 지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다만 「청양」(靑陽), 「주명」(朱明), 「서호」(西顛), 「현명」(玄冥) 등 4수는 “추자악”(鄒子樂)이라 기재되어 있는데, “추자”가 누구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고대 국가에서 제사는 전쟁과 함께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이들 텍스트는 정치

* 열린사이버대 實用語文學科 助教授

성이 강해 오늘의 문학적 관점에서는 소홀히 취급되는 경향이 있지만, 당시에는 최고의 언어적 구성물이었다. 사마천은 이 19편의 「교사기」은 해독하기 어려운 텍스트로 오경학자들이 함께 습독해야 뜻이 풀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역대로 각 왕조마다 교묘가사가 있었지만 대부분 찬송에 불과하여 별다른 의의가 없지만, 현대의 작품은 기세가 있고 정취가 깊다. 비록 언어는 오래되고 난해하지만 당시 유행한 '신성곡'(新聲曲)에 실린 탓으로 여러 가지 시 형식이 혼재해 있고 활기가 있음을 볼 수 있다.

靑陽鄒子樂

청양

靑陽開動，
根莖以遂。
膏潤并愛，
跂行畢逮。
霆聲發榮，
壘處頃聽。
枯槁復產，
乃成厥命。
衆庶熙熙，
施及夭胎。
群生嘒嘒，
惟春之祺。

봄의 양기가 열리어 움직이니
초목의 뿌리가 뻗어나기 시작하도다
비와 이슬이 내리고 잎이 무성해지니
벌레와 짐승이 모두 물려들도다
천둥이 치니 싹이 움트고
굴속의 동물들이 귀를 기울이도다
시들고 마른 초목에 생기가 돌아
자신의 생명을 다시 만드는데도다
만물이 즐겁고 기뻐함이나
모태 중의 생명에도 미치는구나
못 생명이 살찌고 풍성해지니
봄의 복스러운 기운이 가득하도다

○靑陽(청양): 봄. 고대에는 쇠(金), 물(水), 나무(木), 불(火), 흙(土) 등 다섯 가지 원소를 계절, 방위, 색채 등에 대응시켰는데, 봄은 청색과 동쪽에 해당하는다. 그래서 '청양'은 곧 봄을 의미한다. 『이아』(爾雅)「석천」(釋天)에서 “봄은 청양이다(春爲靑陽)”라 하였다. 오늘날에는 3, 4, 5월을 봄으로 치지만 고대에는 음력 1, 2, 3월을 가리켰고, 24절기로는 입춘(立春)에서 입하(立夏) 전날까지이다. ○莖(해): 풀뿌리. ○遂(수): 모두 자라다. ○膏潤(고윤): 초목을 윤택하게 만드는 비나 이슬. ○愛(애): ‘愛’와 같다. 덮다. 초목이 무성히 우거지다. ○跂行(기행): 발로 기어다님. 또는 그 동물. ○逮(체): 이르다. ○霆聲(정성): 천둥소리.

○壘(암): 굴. ○頃聽(경청): 귀 기울여 듣다. 고대 사람들은 초봄의 천둥소리를 듣고 동면하는 짐승이 잠깨거나 알에서 애벌레가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생각하였다. ○枯槁(고고): 겨울을 지나오면서 시들고 마른 초목. ○産(산): 생기다. 자라다. ○衆庶(중서): 여러 가지 무리. 만물. ○熙熙(희희): 기쁘고 즐거운 모양. ○夭(오): 아직 어린 동식물. ○胎(태): 아직 모태 중에 있는 생물. ○嘽嘽(담담): 풍성한 모습. ○祺(기): 복(福).

봄의 신에게 제사지낼 때 부르는 노래이다. 초목이 자라고 동물이 뛰노는 활기찬 모습을 노래하면서, 봄의 생명감을 표현했다.

朱明鄒子樂

주명

朱明盛長,
數與萬物.
桐生茂豫,
靡有所訕.
數華就實,
既阜既昌.
登成甫田,
百鬼迪嘗.
廣大建祀,
肅雍不忘.
神若宥之,
傳世無疆.

여름에는 무성하게 성장하니
만물이 뻗어나고 자라나도다
초목의 줄기가 통하여 번성하고 빛나니
굽어서 찌지지 않는 게 없도다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니
크기도 하고 많기도 하도다
너른 논밭에 곡식들이 익으니
온갖 신들이 흠향하게 하도다
널리 온갖 신들께 제사를 올리나니
잊지 않고 경건하게 거행하도다
신(神)은 선하여 황실을 보우하시니
대대로 영원히 이어지게 하도다

○朱明(주명): 여름을 말한다. 『이아』(爾雅)「석천」(釋天)에서 “여름은 주명이다(夏爲朱明)”라 하였다. ○數與(부여): 퍼지다. 여기서는 만물이 자라나 번성함을 형용하였다. ○桐生(동생): 안사고(顔師古)는 ‘桐’은 ‘通’으로 읽는다고 하면서, “초목이 모두 탈 없이 통하고 자라나다”(草木皆通達而生)라고 풀이하였다. ○茂豫(무예): 무성하고 광채가 나다. ○訕(굴): 굽다. 찌지지 못하다. ○數華(부화): 꽃이 갈리다. ○就實(취실): 열매가 열리다. ○阜(부): 크다. ○登成(등성):

성숙하다. ○甫田(보전): 넓은 밭. ○百鬼(백귀): ‘百神’과 같다. 온갖 신. ○迪(적): 나아가다. ○嘗(상): 맛보다. 여기서는 흠향(歆饗)하다. ○肅雍(숙옹): 경건하고 온화하다. ○不忘(불망): 잊지 않다. 제사를 게을리 하지 않다. ○若(약): 선하다. ○有(유): 보우(保佑)하다. ○無疆(무강): 끝이 없다. 무궁하다.

여름의 신에게 제사할 때 부르는 노래의 가사이다. 여름이 되어 온갖 식물이 무성해짐을 바라면서, 특히 곡식이 성장하여 풍년이 되기를 기원하였다.

西顛鄒子樂

서호

西顛沆碭,
秋氣肅殺.
含秀垂穎,
續舊不廢.
姦僞不萌,
妖孽伏息.
隅辟越遠,
四貉咸服.
既畏茲威,
惟慕純德.
附而不驕,
正心翊翊.

백기(白氣)가 천지에 가득하니
가을의 기운이 초목을 시들게 하도다
곡물은 여물고 이삭은 고개를 숙였으니
봄의 싹들이 버려지지 않고 자라남이라
간사하고 거짓된 것은 나타나지 않고
요사하고 간악한 것은 없드렸도다
변방과 벽지에 살며 아무리 멀더라도
사방의 이민족이 모두 와 복종하도다
이 나라의 위엄을 두려워하고
이 나라의 큰 덕을 그리워하여
귀순하여서 감히 교만하지 않으며
바른 마음으로 공경할 따름이도다

○西顛(서호): 가을을 가리킨다. 가을은 오행 가운데 서쪽과 흰색에 연관된다. ‘顛’은 ‘皓’와 통하며 흰색을 뜻한다. ○沆碭(항탕): 백기(白氣)가 가득한 모양. 백기는 흰 구름 같은 기운을 말하는데, 고대인들은 병란이 일어날 징조로 보았다. 가을은 초목이 시들고 곡물을 수확하는 등 생명이 죽는 때이므로 살기(殺氣)가 많은 시기로 보았으며, 전쟁도 가을에 시작하고 사형도 가을에 집행하였다. ○秀(수): 열매를 맺다. ○穎(영): 벼 이삭의 뽕쪽한 끝부분. ○續舊(숙구): 묵은 싹에서 자라나오다. 이들이 중도에 황폐하게 되지 않았기에 ‘불폐’(不

廢)라고 하였다. ○萌(맹): 싹트다. 나타나다. ○妖孽(요얼): 요사하고 간악한 것들. ○隅辟(우벽): 변방과 벽지. 隅는 국가의 가장자리로 변방을 가리키고, 辟은 僻과 같은 뜻으로 궁벽한 곳을 말한다. ○四貉(사매): 중국의 동북 지방의 네 민족.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을 가리키기도 한다. 여기서는 ‘사이’(四夷)와 같은 말로 중국의 사방 변경지역에 사는 이민족을 통칭한다. ○純德(순덕): 큰 덕. ○附(부): 귀순하다. ○翼翼(익익): 공경하는 모양.

가을의 신에게 제사지내는 노래이다. 『예기』 「월령」(月令)에서 가을의 신의 이름을 ‘소호’(少昊)라고 하였다. 가을은 수확하고 초목이 시드는 계절로 살기(殺氣)가 가득한 때이다. 때문에 형의 집행과 전쟁의 수행도 주로 가을에 실시한다. 이 시에서는 여기에 더 나아가 이민족에 대한 정치적 우위를 강조하고 있다. 가을이라는 자연의 속성을 정치적인 측면까지 확대했다는 점에서 이들 시는 정치시라고 할 수 있다.

玄冥鄒子樂

현명

玄冥陵陰,
蟄蟲蓋藏.
草木零落,
抵冬降霜.
易亂除邪,
革正異俗.
兆民反本,
抱素懷樸.
條理信義,
望禮五嶽.
籍斂之時,
掩收嘉穀.

겨울에는 추위가 매서워져
벌레와 짐승이 굴을 파고 숨는도다
초목이 시들고 떨어지다가
겨울이 되니 이슬이 내리는도다
난리를 진정하고 사악함을 몰아내며
잘못된 풍속을 바로잡는도다
백성들은 본업에 돌아가고
순박함을 품게 되도다
믿음과 의로움은 조리가 잡히고
오악(五嶽)에 망제(望祭)를 올리는도다
적전(籍田)을 장부와 대조하면서
잘 익은 곡식들을 거두어들이는도다

○玄冥(현명): 겨울을 가리킨다. 오행에서 겨울은 북방과 검은색에 대응된

다. ○陵陰(능음): ‘凌陰’과 같은 뜻. 한랭하다. 춥다. ○蟄蟲(침충): 굴속에 숨은 벌레나 짐승들. ○蓋藏(개장): 저장하다. 여기서는 숨다. ○抵冬(저동): 겨울에 이르다. ○易(역): 바꾸다. ○反本(반본): 본업으로 돌아가다. 여기서는 농업에 복귀하다. ○抱素懷樸(포소회박): 본래의 진정한 모습을 가지고 순박함을 지키다. 『노자』 제19장의 “본래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고, 순박함을 가지다”(見素抱樸)와 같은 뜻이다. ○條理(조리): 분류와 정리. 나누고 정리하다. ○望(망): 산천에 지내는 제사. 『상서』 「순전」(舜典)에 ‘망우산천’(望于山川)이란 말이 있다. ○五嶽(오악): 고대 중국에서 방위와 결부된 가장 주요한 다섯 개의 산. 동악은 태산(泰山, 산동성 泰安), 남악은 형산(衡山, 호남성 衡陽), 서악은 화산(華山, 섬서성 華陰), 북악은 항산(恒山, 산서성 渾源), 중악은 숭산(嵩山, 하남성 登封)이다. ○籍斂(적렴): 장부에 기록하여 거두어들이다.

겨울의 신에게 제사지낼 때 부르는 노래의 가사이다. 『예기』 「월령」(月令)에서 겨울의 신은 북방에 있으며 그 이름은 ‘현명’(玄冥)이라고 하였다. 한래서왕(寒來暑往), 추수동장(秋收冬藏)의 계절에 조정에서는 오악(五嶽)에 제사지내고 풍속을 정돈한다.

日出入

해는 뜨고 지고

日出入安窮?
 時世不與人同.
 故春非我春,
 夏非我夏,
 秋非我秋,
 冬非我冬.
 洎如四海之池,
 徧觀是耶謂何?
 吾知所樂,
 獨樂六龍.
 六龍之調,

해는 뜨고 지고 언제나 멈추리오?
 그 시간은 사람의 인생과 같지 않다
 그러므로 봄은 나의 봄이 아니며
 여름도 나의 여름이 아니며
 가을도 나의 가을이 아니며
 겨울도 나의 겨울이 아니로다
 사해(四海)에 비해 연못과 같이 출렁이구나
 두루 생각하매 이를 어찌할거나?
 내가 아는 바 즐거운 건 오직
 여섯 마리 용을 타고 하늘을 나는 일
 여섯 마리 용이 출발하는 걸 보니

使我心若。

나의 마음이 괴롭기 그지없구나

瞥黃其何不徠下!

아아, 승황은 어이하여 내려오지 않는가!

○時世(시세): ‘時光’ 혹은 ‘時代’와 같다. 시간. 이 구는 태양은 끝없이 뜨고 지는데 반해 사람의 인생은 짧다는 뜻이다. ○春非我春(춘비아춘); 봄은 나의 봄이 아니다. 이하 4구는 사계의 추이를 말하면서, 이들의 운행은 사람의 의지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나타내었다. ○泊(박): 물이 출렁거리는 모양. ○四海之池(사해지지): 사방의 바다. 장조(張照)는 “사람의 수명을 해에 비교해 보면, 해는 사해와 같고 사람은 연못과 같다”(人之壽命, 較之於日, 日如四海, 人如池也)고 풀이하였다. 시간을 공간으로 비유하여 사람의 수명의 짧음과 불안정성을 대조적으로 표현하였다. “태양이 사해를 연못처럼 여긴다”는 의견도 있으나 취하지 않는다. ○徧觀(편관): ‘遍觀’과 같다. 두루 돌아보다. 이 구는 위와 같은 사실을 살펴보니 사람의 생명이 무척 짧음을 알겠다는 뜻이다. ○謂何(위하): ‘如之何’와 같다. 어찌할까. “이를 무엇이랴 부르나”로 풀이하는 학자도 있으나 취하지 않는다. ○六龍(육룡): 여섯 마리 용. 『주역』「건」(乾)에 “시기에 맞추어 여섯 마리 용을 타고 하늘을 운행하다”(時乘六龍以御天)는 말이 있다. 용이 여섯 마리인 이유는 하늘, 땅,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육기(六氣)에 대응시켰기 때문으로 본다. ○調(조): 출발하다. 용의 발걸음이 조화롭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若(약): ‘뭍’의 와전으로 본다. 정문(鄭文)은 『한시선전』(漢詩選箋)에서 다음 구의 운자(韻字)인 ‘下’에 맞추어 ‘뭍’로 보았다. 일부 학자들은 ‘순조롭다’, ‘기뻐하다’로 풀이한다. ○瞥黃(자황): 노란 색의 신마(神馬)로, 승황(乘黃), 등황(騰黃), 취황(翠黃), 자황(紫黃), 비황(飛黃) 등 이명이 많다. 황제(黃帝)가 탔다고 하는, 말 몸에 용 날개를 지닌 전설상의 동물이다. 안사고(顏師古)는 ‘황’는 ‘감탄사’로 보고, ‘黃’을 ‘승황’이라 보아, 승황이 내려오지 않음을 탄식하였다고 풀이하였다. 여기서는 안사고의 풀이를 따른다. ○徠(래): ‘來’와 같다. 오다. 이 구는 한 무제(漢武帝)가 승황이 내려와 자신을 하늘로 데려다 주기를 바랐던 일과 일치한다. 『사기』「봉선서」(封禪書)에 보면 한 무제는 “아아! 짐은 진실로 황제(黃帝)와 같이 얻고 싶구나. 짐은 처자로부터 떠나기를 마치 신을 벗는 듯 여기

는 도다”고 하였다.

해의 신에게 제사지낼 때 사용한 노래이다. 태양은 아침저녁으로 끝없이 순환하는데 비해 사람의 생명은 무척 짧음을 대비하였다. 인생에 대한 이러한 사고는 한대의 시문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며, 이는 결말에서 신선 세계에 대한 바람으로 해결을 모색하게 된다. 신에 대한 송가이자 영신가(迎神歌)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회구를 함께 표현하였다.

天馬

천마

太一況,	태일 신께서 하사하시매
天馬下.	천마가 내려오사
靄赤汗,	붉은 땀을 흘리니
沫流赭.	붉은 흙으로 얼굴을 씻은 듯
志倣儻,	뜻은 엄매임 없이 자유롭고
精權奇.	정신은 출중하여라
籟浮雲,	구름을 밟고 오르면
晦上馳.	삼시간에 멀리 흐릿해지네
體容與,	거리낌 없는 풍모에
逝萬里.	만리를 내달리네
今安匹,	펼적할 자 누구인가
龍爲友.	용만이 짝할 만하네

元狩三年馬生溼洼水中作.

원수(元狩) 삼년, 말이 악와(溼洼)강으로부터 왔기에 지음.

○天馬(천마): 중앙아시아 혹은 중동에서 나는 아라비아 말이다. 달릴 때 갈기에서 붉은 피가 흘러 내려 ‘한혈마’(汗血馬)라고도 하는데, 현재에도 중앙아시아 일대에서 난다. 말의 품종이 아주 뛰어나기에 ‘천마’라는 이름을 붙였다. ○太一(태일): 천신의 이름. 『사기』「봉선서」에 “천신 가운데 존귀한 자가 태일이다”는 말이 있다. 장수절(張守節)은 북극(北極)의 큰 별이라고 하였다. ○況(황): ‘賜’와 같다. 하사하다. ○沫(매): 얼굴을 씻다. ‘醜’(회)와 통한다. ○倣儻

(숙당): ‘倮儻(척당)과 같다. 엄때이지 않다. ○精(정): ‘情’과 통한다. 심정. ○權奇(권기): 보통과 달리 뛰어나다. ○籟(섭): 밟다. ○晦(엄): 어둡다. 침침하다. ○容與(용여): 주저하다, 한가하다 등 여러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거리낌이 없다. ○漉(렬): 뛰어들다. ○元狩三年(원수삼년): 기원전 120년. 그러나 『한서』 「무제기」(武帝紀) 원수(元狩) 3년 조목에는 천마와 관련된 일과 시가 없는 대신, 원정(元鼎) 4년(기원전 113년) 조목에 “가을, 말이 악와(渥洼)강으로부터 나온다. 「보정」(寶鼎)과 「천마지가」(天馬之歌)를 짓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 시가 실린 『한서』 「예악지」의 ‘元狩三年’은 잘못 기록되었음을 알 수 있다. ○渥洼(악와): 강 이름. 지금의 감숙성 안서현(安西縣)에 소재한다.

「천마」라는 제목의 시는 두 수로, 한 무제(漢武帝)가 두 번에 걸쳐 준마를 얻은 일과 상응한다. 첫 번째의 이 시는 BC113년경에 지어졌다. 여기의 삼언시(三言詩)는 『한서』 「예악지」에 실려 있는 것이지만, 『사기』 「악서」(樂書)에는 다음과 같이 초가체로 쓰여져 있다. “태일 신께서 하사하시어 천마가 내려오사 / 붉은 땀을 흘리니 붉은 흙을 칠한 듯 / 거리낌 없이 달리고 만리를 내달리니 / 필적할 자 누구인가 용만이 짝할 만하네”(太一貢兮天馬下, 霑赤汗兮沫流赭. 騁容與兮踞萬里, 今安匹兮龍爲友.) 간략하지만 웅건한 필치로 형상과 정신을 함께 묘사하여 대상을 드러낸, 뛰어난 영마시(詠馬詩)이다.

天馬徠,	천마가 왔나니
從西極,	서쪽 끝에서
涉流沙,	사막을 건너
九夷服.	이민족이 복속하면서 데려왔네
天馬徠,	천마가 왔나니
出泉水.	샘물이 나는 곳에서
虎脊兩,	호랑이 같은 무늬에 척추가 둘
化若鬼.	변화는 귀신과 같네
天馬徠,	천마가 왔나니

歷無草,	고비 지역을 지나서
徑千里,	천리를 가로질러
循東道.	동쪽 길을 따라 왔네
天馬徠,	천마가 왔나니
執徐時.	태초 사년 진년(辰年)에
將搖擧,	몸을 일으켜 멀리 달리면
誰與期?	누가 감히 따를 수 있나?
天馬徠,	천마가 왔나니
開遠門,	층층이 문들을 열어라
竦予身,	몸을 높이 들어 올려
逝昆侖.	곤륜으로 날아가리라
天馬徠,	천마가 왔나니
龍之媒.	용의 짝이어라
游閭闔,	창합에서 노닐며
觀玉臺.	옥대를 둘러보리라

太初四年誅宛王獲宛馬作.

태초(太初) 사년, 대원(大宛國) 국왕을 죽이고 대원마를 가져왔기에 지음.

○流沙(유사): 사막을 가리킨다. 사막지역은 바람에 모래가 곧잘 움직이므로 이 같이 불렀다. ○九夷(구이): 여러 이민족들. 고대에는 ‘이’(夷)가 꼭 중국의 동부에 거주하는 이민족만을 가리킨 게 아니라 사방의 이민족을 모두 가리키기도 하였다. ○虎脊兩(호척량): 털빛이 호랑이 같고, 척추가 두 개가 있다. ○化若鬼(화약귀): 천마의 변화가 귀신과 같다. ○無草(무초): 초목이 자라지 않는 고비(gobi) 지역. 신강과 감숙성에는 초목이 자라지 않는 고비 지역이 널리 분포되어 있다. ○執徐(집서): 성세기년법(星歲紀年法)에 따라 태세(太歲)가 진(辰)에 있는 해를 가리킨다. 태초 4년은 곧 기원전 101년으로 경진(庚辰)년이다. ○搖(요): ‘遙’와 같다. 멀다. ○竦(송): ‘聳’과 같다. 천마가 몸을 높이 일으키다. 그러나 문영(文穎)은 “무제는 신선술을 좋아하여 천마가 오기를 언제나 기다리다가, 기회가 되면 이를 타고 곤륜으로 가려했다”고 풀이하면서 ‘竦’을 삼가다는 뜻으로 새겼다. ○昆侖(곤륜): 곤륜산. 신선이 사는 곳. ○龍之媒(용지매): 용

의 매개체. 천마는 용의 부류이므로, 천마가 왔으니 용도 반드시 올 것이라 여긴다는 뜻이다. 이 말에서 후인들은 준마를 ‘용매’(龍媒)라 하였고, 천리마를 ‘용마’(龍馬)라 하였다. ○閶闔(창합): 천문. ○玉臺(옥대): 상제가 사는 곳. ○太初四年(태초사년): 기원전 101년. ○宛(완): 대완국(大宛國). 지금의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에 소재했던 고대 국가. 『한서』 「무제기」과 『한서』 「서역전」에 의하면 이광(李廣)이 대완국의 국왕 모과(母寡)를 죽이고 한혈마를 가져왔기에 「서극천마지가」(西極天馬之歌)를 지었다고 한다.

「천마」의 제2수로 BC101년에 지어졌다. 『사기』 「악지」에는 천리마의 이름을 포초(蒲梢)라고 명기하면서 다음과 같은 초가체의 시를 지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천마가 왔나니 서쪽 끝에서 / 만리를 지나 덕정에 귀화했네 / 신령한 위엄으로 외국을 항복시키니 / 사막을 지나 이민족이 복속하였네”(天馬來兮從西極, 經萬里兮歸有德. 承靈威兮降外國, 涉流沙兮四夷服.) 이 가사는 나중에 위의 본문 같이 유선(遊仙)의 요소가 반영되어 개작되었다. 『사기』 「악지」에는 급암(汲黯)이 무제에게 이 가사가 실린 음악이 조종(祖宗)을 받들고 백성을 교화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간언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러나 후세에는 이 시를 황제의 덕정(德政)에 대한 상서로운 현상으로 보았다.

天門

천문

天門開,
 誅蕩蕩,
 穆并騁,
 以臨饗.
 光夜燭,
 德信著,
 靈寢(平而鴻),
 長生豫.
 大朱塗廣,
 夷石爲堂.

천문을 여니
 하늘이 드넓어라
 신들이 엄숙하게 함께 내려와
 제단에 임하시도다
 영광(神光)이 밤에 나타나 비치니
 황제의 덕신(德信)이 드러남이요
 신령은 덕에 감화되어 복을 내리고
 황제는 장생하며 편안하도다
 붉은색으로 거대한 전각을 칠하고
 평석(平石)으로 건물을 쌓았도다

飾玉梢以舞歌,
體招搖若永望.
星留俞,
塞隕光.
照蒸嶷,
珠熒黃.
幡比翬回集,
貳雙飛常羊.
月穆穆以金波,
日華耀以宣明.
假清風軋忽,
激長至重觴.
神裴回若留放,
殪冀親以肆章. 寂
函蒙祉福常若期,
寂漻上天知厥時.
泛泛溟溟從高旻,
殷勤此路臚所求.
佻正嘉吉弘以昌,
休嘉砰隱溢四方.
專精厲意逝九閼,
紛云六幕浮大海.

옥으로 장식한 죽간을 들고 춤추고 노래하며
초요성(招搖星)을 상징하니 사람들이 오래 바라보네
별의 신들이 정성에 답하니
별빛이 내려와 사방에 가득 차고
자주색 휘장을 비추고
구슬이 노란 빛을 발하네
날개를 나란히 펼치고 내려왔는 새처럼
한 쌍의 춤꾼이 날듯이 걸어가네
달은 부드럽게 금빛 물결을 이루고
해는 빛나며 사방을 두루 비추네
칭풍의 힘을 빌려 오래 머물게 하며
빨리 와서 오래 계시라 신령계 술잔을 다시 올린다
신령은 배회하며 떠나지 못하니
접 뵈기를 바래어 이 노래를 짓는도다
사람들이 기약한 바와 같이 복을 받고
하늘이 적막하다 해도 사람이 바라는 때를 안다네
펼럭펼럭 높은 깃발을 나부끼며 하늘로 올라가
진정으로 바라는 바를 진술하고 싶도다
길하고 좋은 날을 골랐으니 널리 창성하고
기쁨과 번성함이 사방에 가득하리라
오로지 한 마음으로 구중 하늘에 올라
대해에 떠 있듯 광대한 우주를 바라보리라

○誅蕩蕩(질탕탕): 천체가 단단하고 맑은 모양. ○穆并駟(목병빙): 穆은 엄숙하다는 뜻으로 여기서는 부사어로 쓰였다. 『초사』에 자주 나오는 구법이다. 양수달(楊樹達)은 주 목왕(周穆王)으로 풀이하였으나 취하지 않는다. 并駟은 함께 말을 달리다. 곧 하늘의 여러 신들이 장엄한 모습으로 함께 말을 달려 내려온다는 뜻. ○臨饗(임향): 향음(饗飲)하는 곳에 임하다. 곧 제사를 베푸는 곳에 오다. ○光夜燭(광야촉): 신광(神光)이 밤에 빛나다. 『사기』「봉선서」에는 무제가 태일(太一) 신에게 제사지낼 때 사당 위에 빛이 나타났고 낮에는 황기(黃氣)가 하늘에 올라갔다고 하였다. 여기서도 이와 유사한 현상으로 보인다. ○德信著(덕신저): 덕신(德信)이 드러난다. 신령들이 무제의 덕신에 감응하여 강림하였

다. ○靈寢鴻(영침홍): 안사고(顏師古)는 신령들이 황제의 덕에 감동하여 큰 복을 내린다고 해석하였다. 寢은 浸과 같다. ○平而(평이): 이 글자는 잘못 끼어든 글로 본다. ○長生豫(장생예): 장생의 방도를 얻어 편안하다. ○大朱塗廣(대주도광): 大朱는 大紅이란 말로 붉은색. 塗廣은 큰 전각을 칠하다. ○夷石(이석): 평평하고 반듯하게 다듬은 돌. ○玉梢(옥초): 춤추는 사람이 지닌 옥 장식한 죽간. ○招搖(초요): 북두칠성 가운데 자루 끝에 해당하는 별. ○永望(영망): 오래도록 바라보다. 춤추는 사람이 초요성을 상징하는 춤을 추자 사람들이 별의 신이 강림하기를 기다리는 모양을 표현하였다. ○星留兪(성류유): 별들이 머물며 답하다. 별의 신들이 제사에 답하여 내려오다. ○塞隕光(색운광): 내려온 별빛으로 가득 차다. ○紫輻(자약): 제단 위에 걸어둔 자주빛 휘장. ○熿黃(운황): 노랗다. ○幡(번): ‘翻’과 같다. 뒤집다. ○比翮(비지): ‘比翅’와 같다. 나란히 편 날개. ○貳(이): 둘. 여기서는 하나가 아님을 표시한다. ○常羊(상양): ‘徜徉’과 같다. 거닐다. ○穆穆(목목): 편안하고 즐거운 모양. ○華耀(화요): 밝게 빛나다. ○宣明(선명): 두루 밝히다. ○軋忽(알홀): 길고 먼 모습. ○激(격): 빠르다. ○重觴(중상): 재차 술을 따르다. ○裴回(배회): ‘徘徊’와 같다. 머뭇거리다. ○殫(근): ‘覯’과 같다. 뵈다. ○冀(기): 바라다. ○函(함): 포함하다. ○蒙(몽): 받다. ○寂漻(적료): ‘寂寥’와 같다. 텅 비어 고요하다. 적막하다. ○泛泛(범범): 떠다니는 모습. ○溘溘(전전): 번성한 모양. ○旌(유): 깃발의 깃대에 다는 부분. 여기서는 깃발. ○殷勤(은근): ‘殷懃’과 같다. 충심으로 바라다. ○臚(려): 순서대로 늘어놓다. ○所求(소구): 구하는 바. 여기서는 한 무제가 바라는 장생불사를 가리킨다. ○佻(조): ‘肇’와 통한다. 시작하다. ○砰隱(팽은): 번성한 모양. ○九闕(구애): 구중 하늘. 고대인들은 하늘이 아홉 층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였다. ○紛云(분운): ‘紛紜’과 같다. 무성히 일어나는 모양. ○六幕(육막): ‘六合’과 같다. 우주를 가리킨다.

이 시는 천상의 신들에게 제사지낼 때 사용한 노래 가사이다. 천신들은 천문을 열고 내려와 사람들이 제단에 정성껏 차려놓은 제수를 누린다. 그러나 중간

부분부터 한 무제의 승천하고자 하는 바람을 서술하고 이를 실현시키는 장면
을 표현하였다. 달빛을 ‘금빛 물결’(金波)이라 한 부분은 후세에 영향을 끼쳤으
며, 잡언(雜言) 속의 칠언에서 칠언시가 형성되는 과정을 알 수 있다.

< 參考文獻 >

- [漢]司馬遷 撰, [宋]裴因 集解, [唐]司馬貞 索隱, 『史記』, 中華書局, 1982년.
[漢]班固 撰, [唐]顏師古 注, 『漢書』, 中華書局, 1992년.
[宋]郭茂倩 編撰, 『樂府詩集』, 中華書局, 1979년.
[清]張玉穀 著, 『古詩賞析』, 上海古籍出版社, 2000년.
[清]朱嘉徵 著, 『樂府廣序』, 『續修四庫全書』本, 上海古籍出版社, 1995년.
[清]陳祚明 評選, 『采菽堂古詩選』, 『續修四庫全書』本, 上海古籍出版社, 1995년.
遼欽立 輯校, 『先秦漢魏晉南北朝詩』, 中華書局, 1983년.
張永鑫·劉桂秋 譯注, 『漢詩選譯』, 巴蜀書社, 1988년.
趙道衡 選注, 『兩漢詩選』, 中華書局, 2005년.

< 中文提要 >

漢代《郊祀歌》一共十九章, 作於漢武帝時。郊祀歌就是古代帝王在郊祀之禮使用的兩種
樂歌: 一種是祭祀天地神明時使用的郊樂歌辭, 另一種是祭祀祖先時使用的廟樂歌辭。據《漢
書·禮樂志》其作者即司馬相如等數十人, 但具體各章究竟誰作, 沒有明確說明。

祭祀與戰爭, 是中國古代國家至關重要的兩件事情。漢武帝始定郊祀之禮, 郊廟樂歌也以
武帝時代為最盛。從今天的文學觀點來說, 歷代《郊祀歌》一般都是歌功頌德, 別無意義, 但
漢代作品具有氣勢和情趣, 頗有文學價值。雖然語言一些古奧艱澁, 但不難看出當時作家探索
多樣詩歌形式和生動的表現。這裏一部分作品試譯韓文: 《青陽》、《朱明》、《西顛》、
《玄冥》、《日出入》、《天馬》二首、《天門》等一共七章八首。

關鍵詞: 《郊祀歌》、《青陽》、《朱明》、《西顛》、《玄冥》、《日出入》、《天馬》
二首、《天門》